

3/8(화) 여호수아 23-24장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

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(23:5).

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, 잔류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.

광야생활에 비해 가나안의 문화, 종교, 삶의 방식은 매우 그럴듯해 보였습니다.

그러나 보암직한 것이 울무와 덧, 채찍과 가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(23:13).

이스라엘은 한 민족, 한 인종 집단이 아닙니다(출12:38).

출애굽, 광야생활을 거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

<이스라엘>이라는 신앙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.

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속은 <하나님 신앙>에 달려있습니다.

하나님은 가나안 정착을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.

<하나님 나라> 건설을 위한 신명기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.

이스라엘은 이제 이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.

여호수아는 첫 언약의 갱신 장소, 세겜으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(8:30-35).

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들을 선포하고 함께 듣습니다(24:1-13).

조상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분,

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.

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<구원의 도구>들은 달랐지만,

<구원의 주어>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.

“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

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(24:15).”

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

가나안 땅에 <하나님의 나라>가 건설 되었을까요?

사사기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.

나와 우리 가족은 섬길 자를 택하였습니까?

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여호수아 23-24장